

제33차 한·러 어업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

I 회의 개요

- 목적 : 한국 조업선의 2024년 러시아수역 조업쿼터 및 조업조건 협의
- 기간, 장소 : 2023. 12. 5(화) ~ 12. 7(목), 러시아 모스크바(러 수산청)
※ 당초 한국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, 러측 사정으로 러시아 현지에서 개최함
- 참석자 : 2급 최용완
 - 한국(17명) : 해양수산부(최용석 수산정책실장), 본회, 원협, 채낚기업계 등
 - 러측(19명) : 러 연방수산청(야코블레프 부청장), 국경수비대, 조업모니터링센터 등
- 주요 협상결과 : 양국 간 어종별 입어료에 관한 견해 차이로 협상 결렬
 - (입어료) '22년 러-우크라 전쟁으로 미입어, '23년 조업부진에 따른 적자 발생으로 오징어 입어료 동결 요구 → 러측은 인상 고수
 - (코로나 조치) 러시아수역 입어 시, 코로나 예방을 위해 실시된 2주간 해상격리 조치를 전면 해제
 - (감독관 교대) 채낚기 조업이 3개월 내 단기임을 감안, 러 감독관의 교대 없이(現 55일 근무·교대) 조업기간 동안 지속 근무하기로 합의
 - (선도선 임차) 러측은 선도선 임차 어려움을 이해, 러 국영회사를 통한 선도선 섭외 및 임차 가능성 제안 → 업계, 러측 제안서 검토 후 결정
 - (전자조업일지) 전자식 조업일지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양측 간 사전 테스트, 시범운영 및 실무자 워킹그룹 운영 등 필요
 - (입어료 납기) 오징어 입어료 납기를 당초 9월에서 11월로 연장 합의

Ⅲ

향후 계획 등

- 한·러 양측은 '24년 초 추가회의(영상회의 예상)를 개최하여 미합의된 입어료 및 조업쿼터 재협상과 조업조건 세부사항을 추가협의를하기로 결정
- 제33차 한·러 어업위원회 주요사진

